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 (www.iguw.de)

최용준 (한동대 교수, 학술지<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독일에도 신앙과 다양한 학문 및 사상의 통합을 추구하는 신앙과 학문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신앙과 학문간의 대화를 증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공헌한다. 셋째, 다원주의적 세계에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강의, 세미나 그리고 출판사역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위르겐 슈피츠 박사(Dr. Jürgen Spieß; 1949-)로 딜렌부르크(Dillenburg)에서 출생하여 기센(Gießen)과 뮌헨(München)에서 공부한 후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사 과정 중 그

리스도인이 되었고, 1984년에서 1999년까지 독일기독교학생회 SMD(Studenten Mission in Deutschland)의 대표로 일했으며,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부르크(Marburg)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소장으로서 섬기고 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국내외 여러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의 노보시빌스크에 있는 대학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그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자 소망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아내와 자녀)을 잃은 그는 이처럼 부활을 강조하며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재혼 후 얻은 딸이 다운 신드롬 장애가 있어서 의료 윤리에 대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 (WER LERNEN WILL, MUSS GLAUBEN).”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위르겐 슈피츠 박사 외에 이 연구소의 자문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마르쿠스 하이데(Markus Heide), 마르코 헬비치 박사(Dr. Marko Helwich), 피터 쿠델라 박사(Dr. Peter Kudella) 그리고 하트비히 슈누르(Hartwig Schnur)이다. 기타 후원 이사들로서는 헬무트 브뤼크너 박사(Prof. Dr. Helmut Brückner), 울리치 에이바흐 박사(Prof. Dr. Ulrich Eibach), 허버트 하프 박사(Prof. Dr. Herbert Haf), 페터 헤겔러 박사(Prof. Dr. Peter C. Hägele), 한스 하텐하우어 박사(Prof. Dr. Hans Hattenhauer), 하인즈페터 험펠만 박사(Prof. Dr. Heinzpeter Hempelmann), 라인하르트 험펠만 박사(Dr. Reinhard Hempelmann), 미카엘 헤르스트 박사(Prof. Dr. Michael Herbst), 로프 힐러 박사(Dr. Rolf Hille), 존 레녹스 박사(Prof. Dr. John Lennox: 영국 옥스포드), 라이너 마이어 박사(Prof. Dr. Rainer Mayer), 라이너 리스너 박사(Prof. Dr. Rainer Riesner), 헤르만 사우터 박사(Prof. Dr. Hermann Sautter), 잉어 샤러 박사(Prof. Dr. Inge Scharrer), 지그프리트 쉐러 박사(Prof. Dr. Siegfried Scherer) 그리고 만프레드 지발트 박사(Prof.

Dr. Manfred Siebold)가 섬기고 있다. 이 연구소의 웹사이트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WER LERNEN WILL, MUSS GLAUBEN).”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신학, 자연과학 그리고 윤리학 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고, 출판물들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 행사도 개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출판물들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을 링크로 소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 다소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영문으로 된 논문들도 간혹 있으므로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롬(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필란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I)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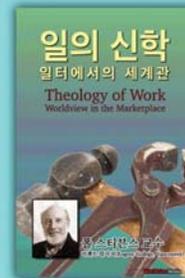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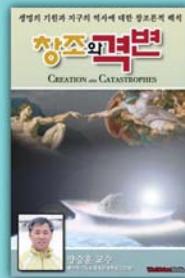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를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 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804-513-2121(교 3834, 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기독교세계관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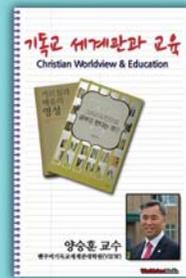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폴 스타빈스 교수
18개 강의 (\$36)



양승훈 교수
24개 강의 (\$24)



양승훈 교수
30개 강의 (\$30)

- 구입은 1개 강의씩 날개로 또는 전체 강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1년 간 다양한 기기에서 제한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PayPal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Watch Later와 VOD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wvmedia/vod_pages